



대학주보



예디대 통합전시회 개최, 직접 디자인한 의류부터 게임까지 다양한 예술 언어 교차

예술디자인대학 8개 학과가 참여하는 통합전시회가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1289번에서 열렸다. 총 31개의 팀이 참여했으며, 8개 학과가 함께 꾸민 전시장에서는 학생들이 직접 디자인한 의류부터 가상 세계의 미션을 수행하는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예술 언어가 교차하며 다채로운 창작의 세계를 펼쳐 보였다. 예디대 오재민(환경조경디자인학 2022) 부학생회장은 “통합전시회는 단순한 작품 전시에 그치지 않고, 전공의 경계를 넘는 융합적 예술 경험을 만들어 가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사진=박서연 기자)

전학대회 학소위 폐지안 최종 부결 학소위 “성찰의 계기…소통 넓히겠다”

김규연 기자 imgonnadoit@khu.ac.kr

지난 11일, 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학소위) 폐지 안건이 전체학생대표자회의(전학대회)에서 부결됐다.

전학대회는 비대면 플랫폼으로 진행됐으며 참여위원은 선출직 구성원을 비롯해, 선출직 구성원이 아닌 자 중 참여위원을 신청한 학생 중 무작위 추첨을 거쳐 구성됐다. 그 결과 약 300여 명의 참여위원이 전학대회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전학대회는 ▲성원 확인 및 개최 ▲심의 및 의결안건-무기명 투표 진행의 건 ▲심의 및 의결안건-학생소수자인권위원회 폐지의 건 ▲기타 안건 ▲자유발언 ▲폐회 순으로 진행됐다. 학소위 폐

지 투표는 무기명 투표 진행의 건의 결과, 무기명 투표 찬성 85.4%에 따라 무기명으로 진행됐다.

투표에 앞서 진행된 학소위 폐지 관련 논의에서 학소위 이가현(정치외교학 2023) 위원장은 “일부 비효율적인 회계 운영에 대한 지적은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도 “일부 감사 결과는 주관적인 해석의 여지가 크다”며 아쉬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기후 정의 행진 참여 등 감사에서 소수자를 위한 행위가 아니라고 판단된 사안에 대해 “학소위는 소수자뿐만 아니라 인권과 차별 문제 전반을 대응하는 기구다”라고 설명했다. 투표 결과, 학소위 폐지 찬성이 출석 인원의 3분의 2를 넘지 않아 최종적으로 부결됐다.

참여위원으로 참가해 학소위 폐지에 찬성 투표한 A씨는 “소수자

인권이 경시돼서는 안 되지만, 학소위 행보는 학내 구성원 인권이나 소수자 인권을 중시하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 찬성에 투표했다”고 말했다. 찬성에 투표한 B씨는 “소수자를 비롯한 학생 인권을 보장하는 학소위 기능은 총학이나 산하 부서 혹은 동아리나 소모임의 형태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해 찬성했다”고 답했다.

반대를 투표한 C씨는 “학소위는 소수자 차별 행위에 저항하고 행동하는 학내 유일 기구이기에 폐지를 반대했다”고 말했다. D씨 또한, “이번 학소위 폐지 논의는 학소위라는 하나의 단위를 겨냥하는 일이 아닌, 학생 자치 자체를 훼손하려는 일로 판단해 반대표를 행사했다”며 “학생 주체가 보내는 의욕과 비판에 대응하는 방식이, 후에도 다른 사건에 선례로 남게 될

것이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학소위 하현희(국어국문학 2024) 부위원장은 이번 폐지 부결에 “학소위 폐지안이 부결된 만큼, 학소위가 경희대 안에서 존재해야 한다고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말했다. “다만, 전학대회가 개최된 계기인 감사 결과가 학소위 입장에서는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며 “문제로 지적된 점이 학소위만의 현저한 문제로 파악되는 게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회칙만능주의를 경계하지만, 정확한 회칙이 만들어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앞으로 이어질 학소위의 행보에 하 부위원장은 “3개월간 이어진 논쟁 논의는 학소위에게도 성찰의 시간이었다”며 “앞으로 타 학생 자치를 비롯해 학생들과 협력하고 소통하는 자세로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2024학년도 후기학위수여식 20일 열려

김유경 기자 ghafjs@khu.ac.kr

2024학년도 후기 학위수여식이 20일 오전 11시 평화의전당과 선승관에서 열린다.

이번 학위수여식은 공동졸업식으로 열린다. 김진상 총장은 국제캠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총장 졸업식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해당 영상을 라이브로 서울캠에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후기 학위수여식에는 서울캠 929명, 국제캠 736명, 총 1,665명의 졸업자가 학사 학위를 받는다. 함께 진행되는 석·박사 학위수여식에서는 석사 총 1,097명, 박사 총 173명이 학위를 받는다. 수상에는 서울캠 22명, 국제캠 17명이 우등상을 수상한다.

단과대별로는 문과대학 97명, 정경대학 220명, 경영대학 218명, 호텔관광대학 161명, 이과대학 90명, 생활과학대학 50명, 약학대학 14명, 음악대학 29명, 미술대학 9명, 무용학부 7명, 자율전공학부 34명, 공과대학 151명, 전자정보대학 54명, 소프트웨어융합대학 76명, 응용과학대학 35명, 생명과학대학 49명, 국제대학 96명, 국제·경영대학 1명, 외국어대학 79명, 예술·디자인대학 104명, 동서의과학과 4명, 체육대학 84명, 융합 3명이다.

학위증은 서울캠의 경우 20일부터 3일간 각 단과대 행정실에서 배부한다.

학위가운은 네오르네상스관 1층 농구장에서, 스톨은 학생회관 2층 총학생회실에서 대여가 가능하다.

국제캠에서는 각 단과대학 행정실에서 22일 금요일까지 학위증을 배부받을 수 있다.

또한 학위 가운은 중앙도서관 3층 르네상스홀에서 대여가 가능하며 스톨은 학생회관 303호에서 대여가 진행된다.